

그런데 얼마 후 여왕의 청혼을 거절한 에식스 남작은 여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에식스는 특히 아일랜드 반란에 대한 전략을 둘러싸고 여왕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무렵 여왕은 등을 돌린 에식스의 뺨을 내려친 적도 있었다고 한다.

1599년 아일랜드 총독으로 파견된 에식스는 반란 진압에 실패하고, 직책을 버려둔 채 잉글랜드로 돌아왔다. 이에 여왕은 그의 관직을 빼앗아버렸다. 에식스는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200~3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런던에서 대중 봉기를 일으키려 했다. 이를 알아차린 베이컨이 여러 차례 간곡하게 만류했다. 그러나 에식스는 끝내 반란을 추진하다가 발각, 체포되고 말았다. 베이컨은 여왕 앞에서 그를 끈질기게 변호함으로써 가축옥(수감자를 석방하는 일)으로 풀려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에식스는 또다시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군을 모아 런던으로 쳐들어가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당시 검사국에 있던 베이컨은 대저택을 물려주기도 했던 은인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였고, 결국 에식스는 처형되고 말

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TV



출세의 달인-베이컨(2)

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이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과 함께 중상모략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왕이 과연 베이컨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는가? 물론 아니다. 여왕은 남작의 후원을 받는 베이컨도 불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베이컨은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을 엄격하게 몰아붙였다. 여왕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베이컨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남작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결국 남작은 참수를 당하고 말았다. 베이컨은 그와의 두터운 친분이 자신의 출세에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점을 오히려

않기 위해 더욱 발 벗고 나섰던 것이다.

물론 베이컨은 사람들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 참사 의원의 딸과 결혼을 한다. 그러나 베이컨의 사치스런 생활 때문에 몇 년 가지 못해 부인이 가지고 온 지갑금마저 다 써버리고, 빚에 쫓겨 채권자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둘이 갓 지난 나이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후계자로 지명됨)가 왕위에 오르자, 베이컨은 또다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끊임없는 명예욕과 거침없는 활동적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이컨은 검사차장과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되더니, 1616년에는 추밀원(국왕의 자문기구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 고문관, 이듬해에는 궁정 대신(왕의 최측근)으로까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베이컨은 56세 때, 옥새상서(왕의 도장을 관리하는 최측근 벼슬)로 임명된다. 지난날 자신의 아버지가 맡았던 자리, 항상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쉽게 오르지 못했던 자리에 드디어 오른 것이다. 이로써 베이컨은 자신이 태어났던 런던 시내 템즈강 가의 요크 하우스, 즉 옥새상서의 관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그토록 열망해마지 않았던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으며, 남작(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등작 가운데 다섯 번째 작위)과 자작(네 번째 작위)의 칭호를 잇달아 받게 된다. 곧이어 기사작위를 받은 베이컨은 국왕의 법률고문 자리까지 꿰차게 된다. 이 무렵, 그의 가장 주요한 저서로 평가 받는『신기관론』까지 출간하였으니,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서 철학자기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응급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교통사고, 심정지, 호흡곤란, 심각한 출혈 등 긴박한 순간에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응급처치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현장 응급처치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여명이 심정지로 사망한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거리 등 현장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심폐소생술 지침서 및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며 약45%까지 생존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셈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 번째 응급 처치자일 수 있다. 가까운 가족, 동료, 이웃이 갑작스런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119구급대보다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다. 이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급처치 능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응급처치 교육확대와 함께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등을 숙지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응급상황이 119구급대와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은 바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에 달려있다. 일반인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냐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족, 내이웃을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응급처치라는 손을 내밀고 모두가 현장의 응급 처치자가 되는 날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성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위 류경진

독자 투고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철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입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당신의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 제도는 국민 여러분의 눈과 관심이 소방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참여의 대가’입니다.

[신고 대상]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고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작동이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으로 막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고 내용]

불법행위가 확인 가능한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비공개 처리)
[신고 방법]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시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진가를 발휘하는 생명의 장치입니다. 이 중요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강홍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과 박은주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음력 5월 28일)



48년생 골목대장 역할도 열심히 해야 한다.60년생 새로운 사람이 가슴을 두드린다.72년생 키 작은 나무 하늘 높은 줄 알아내자.84년생 완벽한이론에 경험을 더해보자.96년생 준비 과정 끝났다. 출발선에 서보자.



51년생 걱정은 물어두고 신나게 놀아보자.63년생 배포큰 장사로 이문을 알려보자.75년생 험한 것을 버려내고 새것을 가져오자.87년생 웃음은 꼭 찌고지고 기분은 들썩인다.99년생 틀리지 않은 지적감시하길아보자.



54년생 늦게배운 공부기재미를 더해준다.66년생 부자된 살림에 여유롭고 평안하다.78년생 진득한 기다림 비싼 값을 받아내자.90년생 흑시하는 기대 초라함만 더해진다.02년생 보석 같은 존재 거듭남을 가져보자.



57년생 강한 자신감이 반전을 불러낸다.69년생 혼자는 역부족 남의손을 빌려보자.81년생 눈시울 붉어지는 감동이 밀려온다.93년생 가진 향무지에도 씨를 뿌려보자.05년생 잠시 헤아림이 단단함을 더해준다.



49년생 밀려있는 숙제 비껴게 해야 한다.61년생 구석을 살피고 돌다리도 두드려자.73년생 예상치 못한 평가 한숨이 깊어진다.85년생 반쯤은 포기하고 기회를 다시 하자.97년생 전부 같은 기쁨 구름 위를 걸어보자.



52년생 밀고 당기던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64년생 호기롭던 도전 소문만 남겨진다.76년생 적극적인 대응 불이익과 맞서보자.88년생 이차하는 방심 공동 탐이 무너진다.00년생 건지기 힘들었던 부진을 벗어나는다.



55년생 불꽃은 없어도 잔파를 가져오자.67년생 피하고 도망가면 손해가 배가 된다.79년생 달달한 분위기 행복임을 알아내자.91년생 미우나 고우나 한편이 되어보자.03년생 간결하고 단정함이 무리를 해내자.



58년생 예뻐게 오는 유혹가사가 솟아있다.70년생 뒤늦게 맺은 인연서로를 알아가자.82년생 느리고 천천히 순서를 기다려자.94년생 우물안개구리 넓은 곳을 향해가자.06년생 청고아끼는 살림꾼이 되어보자.



50년생 인심은 후하게 대가치 얻어주자.62년생 속에 있는 불만을 밖으로 꺼내보자.74년생 든든한 뒷바라지 날개가 달려진다.86년생 말과 행동에 일치감을 보여주자.98년생 은근히 하는 하세 잠수만 봐준다.



53년생 풍성한수확 공간이 차고 넘쳐진다.65년생 척하게 살이었던 중가가 넘겨진다.77년생 맛있는 우정이 금한 불을 꺼준다.89년생 서툰 짜리 체면 방해꾼이 되어한다.01년생 뒤에서 보는 흉천리까지 퍼져간다.



56년생 이해는 하지만 원망은 남겨진다.68년생 생각이 복잡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80년생 돌아보니 제자리 각오를 다시 하자.92년생 솔직한제안을 흔쾌히 받아내자.04년생 꼬리처럼 붙었던 거인이 떨어진다.



47년생 슬픈 아이기도 웃으면서 해보자.59년생 미움받는 동지같은 꿈을 그려보자.71년생 고수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자.83년생 축하한다.인사범으로 이어진다.95년생 알았다하는 대답 실천에 옮겨가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승 압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 집 인 전 광 춘	편 집 국 장 박 선 주
2016년 6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 표 전 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 장 실 (내선) 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 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